

건축문화 SARANG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6.07 080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55 T 062.521.0025 F 528.0026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발행인 : 정명철, 박용묵, 전병감



가온마당

장소는 기억이 축적되는 시간의 집합체이며,
건축은 시간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경계를 만들며

해변, 언덕, 주택

남측의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조망을 가진 주택은 모든 실에서 유달산과 다도해 한눈에

전남 나주의 이형호 건축사와의 만남
전통과 현대의 건축문화를 조화롭게 지휘하는 청년 건축사

Editorial

사설코너 논설위원 위촉

건축·도시 관련 각종 심의·자문기준은 폐지 되어야

5개 구청 인허가 멘뉴얼화하여 통일

광주건축사회, 2016년 시회 발전을 위한 지도부 합동 워크숍 개최해

2016 꿈다락 토요문화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광주지역 졸업식 열려
'삶속의 건축'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 양림 건축테마투어 진행한다

양림동으로 떠나는 근대예술여행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신재욱 사무관,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실무노트' 펴내
실무과정 중 틈틈이 적은 메모와 경험을 함께 기술해 생동감 있게 전달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6 도시재생선진지 안양권투어 성황리 개최

일반 시민과 전문가 80여명 안양권역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 답사

전라북도 완주군, 원클릭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실시

군산시, 창조적 상생을 통한 근대역사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테마가로정비사업

남원시, 남원역사 및 광한루원 주변 정비, 신시가지 및 배후 주거지역 활성화

전라북도, 도시재생으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다

Editorial

건축·도시 관련 각종 심의·자문기준은 폐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국민, 삶의 질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속도감 있게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각종심의·자문기준을 개정, 폐지하여 도시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는 관련법, 령, 규칙, 조례가 규정하는 고도의 건축공학적인 기술들을 담아 완성하게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의 건축·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심의·자문기준을 만들어 건축디자인의 창작성과 독창성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사업성과 경제성 마저 해치고 있다.

이의 임의기준에 의한 심의과정에서는 충수를 내려라, 용적률을 낮춰라, 세대수를 줄여라, 건축선과 대지경계선에서 더 이격하라, 자동차전용도로 상부에 방음터널을 설치하라, 기준보다 120%이상의 주차배치를 하라. 등의 내용들을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끝까지 의결이 동의해 주지 않고 있다. 법에 명시된 과반수 동의의 결의 아니라 아직도 만장일치의 가결로 인하여 3~4차례의 심의·자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른 시간낭비와 금융비용이 추가되어지는 폐해는 당연히 설계에 참여한 건축사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법과 정책을 수립하는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건축정책학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의 규제개혁에 동의하고 폐지하는데 노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도시화, 산업화혁명 40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72만명, 전북에서 61만명, 총 133만명이 더 살만한 가치가 있는 타 도시로 빠져 나갔다. 불행하게도 GDP는 지금도 전국 꼴찌수준이다. 건축·도시 관련 조례와 각종 심의 기준들을 개정, 폐지하여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다시 모여들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

인천을 비롯 수도권의 도시들은 각종심의기준의 완화와 조례상의 용적률을 우리지방의 기준보다 대폭 완화하여 기업유치와 도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행정을 탓하기보다는 제도상의 규제 개혁에 우리 건축인들이 앞장서야 할 때이다.

건축사는 그 도시의 얼굴을 조형창작하는 예술인으로서 책무가 막중하다. 공공건축사(가)제도, 디자인자문제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건축·도시 관련 각종임의 기준이 폐지되어도 수준 높은 건축조형 창작 활동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가치를 더 높여 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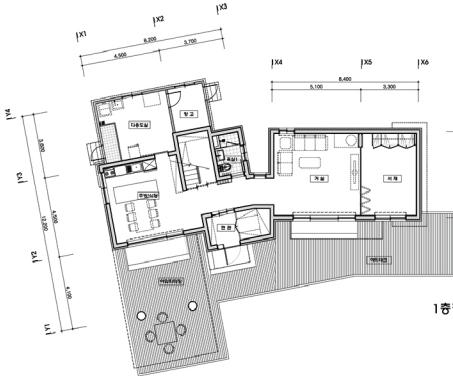


왕산리 주택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687

남쪽의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조망을 가진 주택은 모든 실에서 유달산과 다도해 멋진 교랑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대지의 레벨차를 이용해 독립성을 확보하며 바다를 향한 풍경액자 같은 매스와 전원주택의 경사 지붕형 매스가 조합되었다.



광주건축사회, 2016년 시회 발전을 위한 지도부 합동 워크숍 개최해

지난 6월 21일 전북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시·구청 관계 공무원도 참여



광주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지난 6월 21일 전북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 시회 발전을 위한 지도부 합동 워크숍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명철 회장을 비롯한 시회, 신협 임원진과 5개구 협의회장, 시·구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건축사 위원, 그리고 시·구청 건축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1일째 일정에서는 충남 부여 백제문화체험단지와 국립부여박물관을 답사하고 변산대명리조트에서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정대경 사무관의 강연과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어 시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토론결과와 워크숍 종합내용은 2일째 오전에 발표됐다.

정명철 회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회원간의 소통!, 교육기관과의 소통!, 그리고 행정기관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이삼통을 바탕으로 우리 광주 지역 건축계를 혁신하고 우리 건축사회원들이 공존하며 어디서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이번 워크숍에서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광주건축사회 2016년도 |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공지

건축사법 제30조의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16년도 건축사실무교육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교육 신청 바랍니다.

- (1) 실시근거 : ①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 (2) 실무교육 계획

월	일시	종류	과목	강사(예정)	장소	교육시간	교육비
7월	26일(화) 14:00~16:00	전문	지식재산의 이해	변종진 변리사 (변종진 특허법률)	5층	2시간	30,000원
	26일(화) 16:00~18:00	전문	전략적 경영의사결정	고성석 교수 (전남대 건축학부)	대강당	2시간	30,000원
10월 (예정)	미 정	윤리	건축사의 역할과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	최혜영 교수 (전남대 사학과)	미정	1시간	무료

- (3) 교육신청기간 : 해당 교육일 3주 전부터 신청 가능

- (4) 출석인정

① 매 과목 교육 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원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 부터는 자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② 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출석체크

① 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 또는 QR코드(교육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를 이용하여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 (6) 수강신청 절차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② 협회 ID / PW 로 로그인

③ 교육과정안내 : 실무교육 선택 ⇒ “건축사회선택”에서 “광주건축사회”선택 ⇒ 교육일자 확인 후 각 과목명 클릭

* 광주건축사회 선택 후 “신청 중” 클릭 후 선택 신청도 가능

- (7)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건축사회,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난 6월 24일 BIM실무교육 진행, 오는 7월 15일에는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개최

광주건축사회는 회원사의 업무능률 향상을 통한 사무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24일에는 광주역 세미나실에서 6월 초 공고를 통해 모집한 25인을 대상으로, BIM 이해와 REVIT 모델링, REVIT DATA 활용에 대한 교육과정을 진행했으며 오는 7월 15일에는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6월 중순경부터 교육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40여명이 수강신청 했으며 교육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내 녹색건축인증평가 방법 및 사례와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작성방안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6 도시재생 선진지 안양권투어 개최

일반 시민과 전문가 80여명 안양권역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 답사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안길전)는 지난 6월 25일 일반 시민과 전문가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년 광주도시재생투어 선진지 답사’를 성황리에 실시했다. 이번 투어는 경기도 안양권역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안양예술공원’과 공장건물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김중업 박물관, 폐광재생 프로젝트 ‘광명동굴’’을 답사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참가자를 모집했고,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80여명의 일반시민들과 학생들, 건축사, 교수들이 신청하며 많은 관심이 몰렸다.

한편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광주도시재생 발전 방향과 광주도시재생의 과제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 사업 필요성에 대한 대중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도시재생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노대동 주택

광주시 남구 노대동 740-16

건물의 경계를 만드는 것, 본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남쪽으로는 작은 도로를 경계로 인근 주택과 마주하고 있고, 서쪽 나즈막한 산과 묘지를 바라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열고 어디까지를 닫을 것인지...

채광 환기를 고려하여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계를 세워야만 한다. 주변은 경사지에 위치한 3층까지 건축 가능한 단독주택지로 인접건물들의 높이가 상당히 높다.

본 계획부지는 동측에 산을 면하여 그나마 숨통이 트인 곳이며, 남측 전면의 건물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남, 동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ㄱ”, 자 형태의 배치를 하였다.



경계를 만들며...

전승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이작

구례목재문화체험장

정영법 건축사 / 로운 건축사사무소

구례목재문화 체험 장은 섬진강변과 인접한 간전면의 폐교부지에 목재문화 체험 및 교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이다. 기존 폐교는 마을의 진입부에 위치하여 약 3미터의 경사로를 따라 마을에 맞닿아 있고 구례와 순천 간 지방도가 좌측에 접해 있다. 백운산 자락에서 이어진 선창 골의 계곡물이 남쪽에서 굽이쳐 북쪽의 섬진강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간직한 곳이다.

기존 학교의 후면에 자리하던 이팝나무 휴식정원을 보존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의 중심에 위치시키며 그 주위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른 실들을 배치시켰다. 레벨이 각각 다른 대지의 세 모퉁이에서 자연스러운 진입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외부공간을 거쳐 건물에 다다를 수 있다. 구례방향인 북서측에서는 전통건축의 누하 진입방식을 적용하여 필로티공간을 확보해 다양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개방감 있는 외부공간을 계획하였고 마을과 접한 동쪽에서는 옥외휴게마당을 통해 2층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 학교의 레벨을 그대로 보존하고 흐름들을 연결하여 옥외 학습장 휴게데크 등 다양한 외부체험공간들과 자연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외부공간들을 제안하였다. 체험장 내외부 공간에 다양한 컨텐츠를 삽입하여 많은 사람이 찾는 목재문화체험장이 되기 위한 자자체의 노력을 기대해본다.

GURYE WOODEN EXPERIENCE CENTER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신재욱 사무관,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실무노트' 펴내

6월 14일 출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내용 담겨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신재욱 사무관(이하 신 사무관)이 도시계획 및 건축 인허가 실무과정 중 틈틈이 기록한 현장노트를 책으로 펴내 화제다.

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학 박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건축과 도시계획 전문가로 잘 알려진 신 사무관은 책을 발간하기에 앞서

'건축인허가 실무노트' (2004), '도시+건축인허가실무서' (2008)를 집필 했으며, 이번에 새롭게 '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노트'를 내놓았다.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 양림 건축테마투어 진행한다

온라인 접수 8월부터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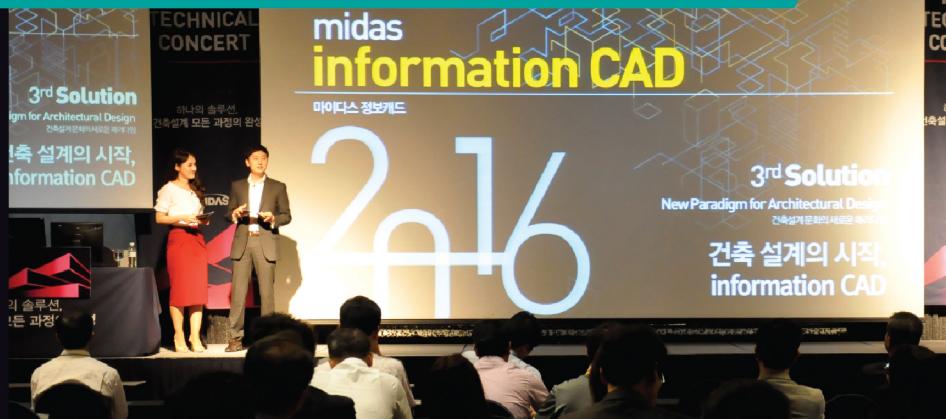
광주 남구 관광청 홈페이지에서 테마투어 코너에서 접수 가능



이번 투어 사업은 양림동 지역 내 건축 명소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몰입도를 높이는 스토리 전달 큐레이팅 서비스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양림의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역사적 배경 및 건축물에 대해 학습과 투어가 진행되어 근현대 120여년의 양림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Good bye! 2016 MIDAS TECHNICAL CONCERT

2500여 명의 건축사님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이다스 디자인 솔루션

세미나 자료 및 다시보기는 www.midasArchi.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슬아미 T 031 789 1902 E csam0602@midasit.com



2016 꿈다락 토요문화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광주지역 졸업식 열려

지난 7월 9일 광주예총에서... 40여명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졸업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 주관 및 후원으로 열린 '2016 꿈다락 토요문화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광주지역 졸업식이 지난 7월 9일 광주예총에서 열렸다.

지난 4월 23일부터 광주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속의 건축'이라는 주제를 갖고 열린 토요문화 건축학교는 40여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7월까지 총 7회로 교육을 수강했다.

한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 5일제 수업과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업이 없는 토요일, 학교 밖에서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광주 강필서 건축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받아

지난 6월 1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6 건설의 날' 기념식서



광주건축사회 회원인 강필서 건축사(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가 지난 6월 1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6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필서 건축사는 '건축전문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건축, 건설문화 창달에 이바지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 대한민국 건설, 희망을 세웁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황교안 국무총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 건축 관련 단체장, 건설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 단체장, 건설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박창권 건축사 / 씨에이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67, 2층
– 박병수 건축사 / 토은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남평읍 지석로 28, 2층
- 변경(상호) – 박환호 건축사 / 무용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0, 미래타워 409호
– 황인주 건축사 / 그린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장평3길 82, 1층
- 결혼
– 김태주 건축사 / 대진 건축사사무소 / 차남 결혼 – 06.12 (일)

▶ 전남 7·8월 지역축제 안내

- ▶ 07. 29 (금) ~ 08. 02 (화) 고흥우주항공축제 2016 –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
- ▶ 07. 29 (금) ~ 08. 02 (화) 목포항구축제 2016 – 전남 목포항, 삼학도
- ▶ 07. 29 (금) ~ 08. 04 (목) 정남진장홍물축제 2016 – 전남 장흥군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 07. 30 (토) ~ 08. 07 (일) 강진청자축제 2016 – 전남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 ▶ 08. 12 (금) ~ 08. 15 (월) 무안연꽃축제 2016 – 전남 무안군 회산백련지 일원



시흥 물왕저수지 수변상가블록 계획

이원규 건축사 / (주)수지 건축사사무소
강동영 건축사 / (주)청어람 R&C 건축사사무소

Water Flow를 기본개념으로 하여 4개의 연속된 건물을 역동성있는 디자인 어휘로 연결시켰다. 평면적인 Flow는 모든 건물에 걸쳐 수직적인 큰 면의 흐름을 만들어내며, 큰면속에 연속되어 있는 창들과 LED 수평띠는 호수면에 비친 모습과 함께 크고 작은 Stream을 만들어 낸다. 이렇듯 같은 어휘를 품고 있으면서도 건물들은 각자의 색상으로 개성을 지니며, 건물명을 대신한다.

Lake SIDE_Green, LakeSIDE_Yellow, Lake SIDE_Orange...



송봉엽 주택

연을 사랑하고나무를 사랑하는 건축주를 위한 집.



대지위치 |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168-1번지 대지면적 | 981.00m² 건축면적 | 117.86m² 연면적 | 257.82m² 규모 | 3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고벽돌치장쌓기

첫집 [1'st House]

자연과 사람, 공간이 만나는 중심점이 되고자한다.



대지위치 |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193-1 대지면적 | 281.30m² 건축면적 | 109.92m² 연면적 | 141.90m² 규모 | 2F 지역 | 1종일반주거지역 지구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전라북도 완주군, 원클릭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실시

오는 7월 중순경부터 군청 홈페이지에서 클릭 접속 가능

전북 완주군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 및 군민의 행복도 향상을 위해 신규 시책으로 '원클릭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7월 중순경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원클릭 건축행정 서비스란 건축 인·허가를 접수하기 전에 인·허가 고려사항을 군 대표 홈페이지 내의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사항을 군 대표 홈페이지 내의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이다. 민원인이 종전에는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군청 해당 실과소로 방문하거나 전화상으로 문의해 처리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군청 관계자는 "이번 원클릭 건축 민원 상담을 통해 각종 건축 민원의 해결을 위해 군청 방문 등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정태조 건축사 / 해세드 건축사사무소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44(운주로)

○ 변경(상호) - 이영운 건축사 / 누리 건축사사무소 → (주)누리종합 건축사사무소

○ 부고

- 장영기 건축사 / 예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6월 05일 (일)

- 김형윤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금강 / 본인상 - 06월 10일 (금)

- 김용안 건축사 / 코어핸즈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7월 03일 (일)

- 이 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건사 / 본인상 - 07월 07일 (목)

▶ 건축사 FC 1박 2일 워크숍 개최예정

- 일자 : 7월 23일 (토) / 장소 : 전북 진안성수체련공원 / 식사장소 : 백운동 계곡펜션

▶ 전북 7·8월 지역축제 안내

- 07. 14 (목) ~ 07. 19 (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2016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

- 08. 04 (목) ~ 08. 06 (토) 가매축제 2016 (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 앞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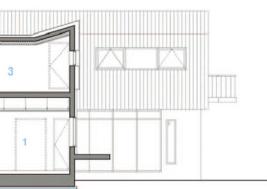
- 08. 05 (금) ~ 08. 07 (일) 고장 갯벌 축제 2016 (전북 고창군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8. 27 (토) ~ 09. 04 (일) 무주반딧불축제 2016

(전북 무주군 일원(남대천, 반디랜드,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빙인섭 건축사 /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Horizontal section



Vertical section



Section detail A



Section detail A



Section detail A

전라북도건축사회, 2016년도 상반기 건축사 실무교육 시행

지난 6월 28일 전주 바울센터에서...
건축공사 감리실무와 건축법에 대한 교육

전북건축사회(회장 전병갑)는 지난 6월 28일(화) 전주 바울센터에서 '건축공사감리 실무(강사조병섭 건축사/엘도건축사사무소, 2H × 2회)'와 '건축법 이해(강사윤혁경/대한건축사협회부회장)'란 과목으로 '2016년 상반기 건축사 실무교육'을 시행했다.

감리실무에 관한 강연을 한 조병섭 강사는 '현장을 지도하는 전문가로서의 감리자가 역할에 충실히 여야 함'을 강조하며, 알쏭달쏭한 법규 확실히 알기,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등 감리업무실무에 필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감리교육을 진행했고, 윤혁경 강사는 '최근 건축법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 안전 및 피난기준 강화 등의 입법추진' 방향과 이에 따른 건축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에 대한 법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령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가로서의 입지와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전북건축사회에서는 오는 9월 경에 '흙건축'과 '백제문화와 건축'이란 과목으로 2016년도 하반기 건축사 실무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시건축사회, 덕진구청과 건축허가 관련 간담회 개최

지난 6월 15일 덕진구청 회의실에서...
건축과를 비롯 협의부서 참여

전주시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지난 6월 15일 덕진구청 회의실에서 덕진구청 건축과를 비롯한 건설과, 생태도시과, 민원봉사과 등 건축 허가관련 협의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건축인허가 업무처리시 보완사항 등으로 인해 당초 처리기한보다 지연되어 해당 구민들의 만족도가 감소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으며, 이 자리에서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과 '보완사항 최소화를 위한 방안', '기타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전주시건축사회는 향후에도 전주 시민들의 건축허가 관련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대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도시재생으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다

군산시 활발하게 사업 추진 중...

전주·남원 등 도시지역도 원도심 활성화 대책 마련

전라북도에서는 쇠퇴하고 있는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14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군산시는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을 투자하여 창조적 상생을 통한 근대역사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테마가로 정비사업 등 8개분야 사업을 본격 추진중에 있다.

또한 2015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주시는 2017년 본격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을 투자하여 3개권역별(전통문화권역, 광역교류거점권역, 첨단산업육성 거점권역)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5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원시는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 지방비 50억)을 투자하여 남원역사 및 광한루 원주변 정비, 신시가지 및 배후주거지역 활성화, 춘향테마파크 시설확충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중으로, 연내 국토교통부의 심의절차와 주민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17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23일 도시재생전략계획 심의를 통과한 익산시와, 활성화계획 수립중인 정읍, 김제 등 3개시는 '17년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사업에 공모선정되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중에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주안점을 지역의 자생능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재탄생에 두고, 지역마다의 환경,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조화를 모색하고 특화되어 있는 문화관광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긴밀한 지역협의체 구성 등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라북도를 도시재생의 아이콘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익산지역 건축사회, Revit 스터디교육 자체시행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 마다 진행...

지난 6월 29일에는 서울 간담회에도 참석

익산지역 건축사회(회장 안영묵) 회원들의 새로운 변화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열정적인 자세가 전국의 건축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 화제다.

이 지역 회원 12명은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5시간씩 자체적으로 Revit 스터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9일에는 서울에서 열린(주)상상진화 주최, BIM 활용 또는 준비중인 전국 건축사들의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자기계발에 앞장서고 있다.

스터디에 참여중인 한 건축사 회원은 "건축사들이 교육 외에도 함께 자리하여 업무에 필요한 의견 등을 서로 공유하며 힘든 건축계를 또다른 시각으로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른 많은 건축사들도 자기계발을 위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축문화사랑, 새로운 지면 구성에 따른 사설코너 논설위원 위촉

광주, 전남, 전북지역

건축 전문가 9인 집필진 구성

지역	성명	소속	직업구분	사설제재 순번
광주	이창율 고성석 신재우 유우상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사 교수 공무원 교수	2016.07월/2017.04월 2016.10월/2017.07월 2017.01월/2017.10월 2017.03월/2017.12월
전남	김정규 정금호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2016.08월/2017.05월 2016.11월/2017.08월
전북	강미현 최상철 추원호	건축사사무소 예감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건축사사무소 신세대 그룹	건축사 건축사 건축사	2016.09월/2017.06월 2016.12월/2017.09월 2017.02월/2017.11월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700,000원
- 하단광고: 350,000원
- 하단1/2 광고: 200,000원

- 구독료: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 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협 131-009-471898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일반설계공모

본 설계공모는 청소년수련관 건립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청사 주변을 도심속 청소년 휴식공간이자 활동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위한 참신한 설계안을 도출하고자 함.

대지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231-1번지
대지면적 : 6,625.00m²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 2,506m²(±5%이내 조정가능)

총 수 : 지하1층, 지상 3층
용 도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주요시설 : 체육활동장, 특성화수련활동장, 실내집회장, 자치활동실 등

당선작 :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우수작 : 건축사사무소 선 서재형 건축사

당선작 이길환 건축사_(주)길 건축사사무소

가온마당

(가온 : 순우리말로 가운데, 중심)

장소는 기억이 촉촉되는 시간의 집합체이며,

건축은 시간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대지는 남원의 역사와 문화의 풍요였던 구 남원의 앞에 조성되며,

도시의 문화와 역사, 시간과 새로움을 담을 도시의 포켓공간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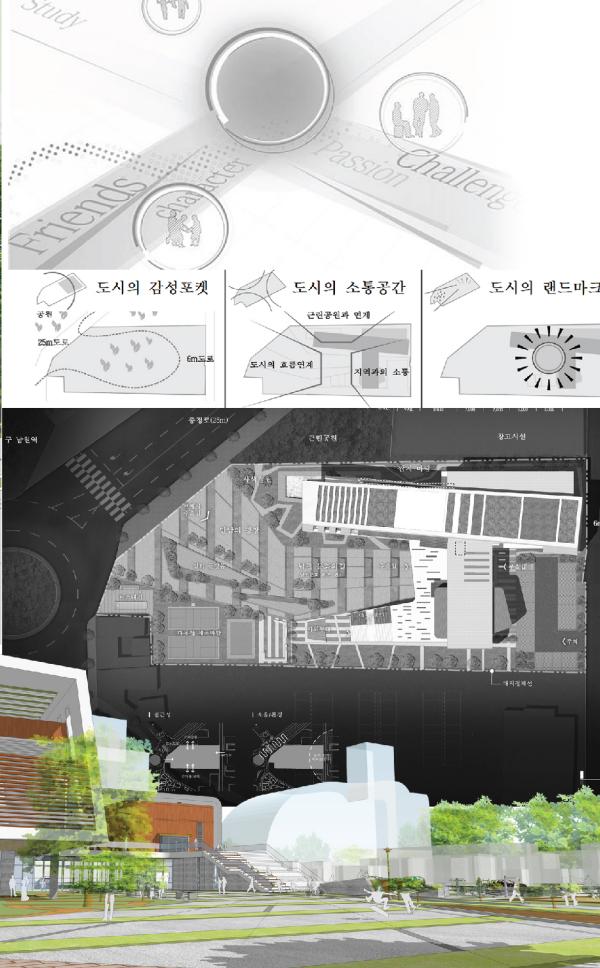
장소성을 가진다.

남원청소년수련관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담아 걸쳐내고,

휴식 및 소통공간, 수련활동의 기능을 수행한다.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기워주는 거점공간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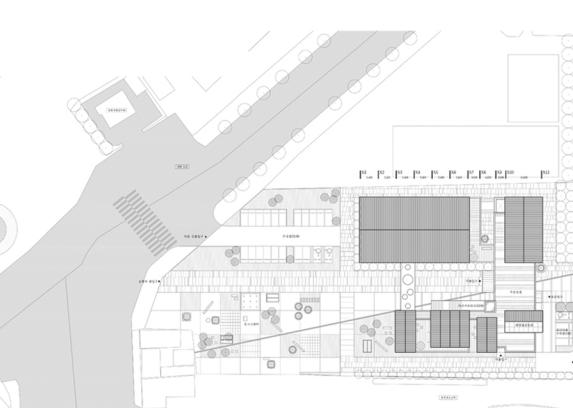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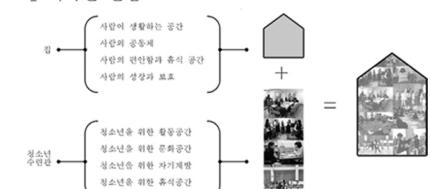
남원의 또 다른 성장 구심점이 될 것이다.



우수작 서재형 건축사_건축사사무소 선



디자인 컨셉



전통과 현대의 건축문화를 조화롭게 지휘하는 청년 건축사 전남 나주의 이형호 건축사와의 만남

전남 나주의 이형호 건축사는 젊은 청년건축사로서 '전통 건축'이란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문화재 실측설계기술과 문화재 보수기술 자격을 모두 갖춘 건축사로도 유명한 이형호 건축사는 본인의 업역에 대해 "직능으로 보면 건축사이고 또하나는 건축역사를 트랙킹하는 두가지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표했다. 다음은 지난 6월 29일 전남 나주시 중앙동 (주)삼정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이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설계에 대해서 당시에는 특별히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림이나 음악 예능분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후 아버님의 권유로 그 당시 문화재 실측설계사무실인 삼진 건축사사무소(대표 이봉수 건축사)에서 설계사무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한 실무가 연차가 쌓이고, 제 기억에는 3년차때부터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및 '업'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어 계속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한 설계사무실에서 12년을 근무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5년전인 2011년말 삼정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문화재 실측설계 및 보수를 업으로 하는 이분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건축을 경험하거나 어떤 직능이다라고 체험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커리큘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오기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이라는 물성을 가진 축조물을 디자인하고 계획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가지는 매력을 누군가는 일찍 접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사님께서 학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능으로 보면 건축사이고 또하나는 건축역사를 트랙킹하는 두가지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이 문화재 복원 및 보수에 대한 내용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건축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땅에 있어왔던 건축행위에 대한 탐구 및 디자인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명칭으로 박제된 건축의 행위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당시 유행하던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땅에 이전부터 있어왔던 건축행위의 총체적인 이해이고 저희는 역사성, 곧 긴시간이라는 통로를 통해 형성되어온 행위에 대한 이해를 현재시간에 비추어 이해하는 건축이 제 행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직능이지만 사실 한계성도 분명합니다. 강력한 디자인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갖는 한계성과 확장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설계사무실의 개체수도 적을뿐더러 전통건축이라 불리는 틀이 사실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게 아니라 건축이라는 큰 틀안에서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성읍, 마을, 그리고 개별 목조건축에 대한 이해는 지금의 현대건축에서 발달 되어온 건축적 함의를 담은 단어들로 치환 및 이해가 가능하며, 더 깊이있는 생각들도 업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대가 지나도 사람이 생각하는 바 각론이 변할뿐이지 줄기는 비슷하며 이땅에 예전부터 있어왔고 자연과 재료에 순응하여 시간을 견뎌온 건축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물을 대하게 되면 디자인의 원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건축사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면?

저의 설계나 기획으로 인해 현실화된 건축물이겠죠. 또한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의 손을 통해 축조된 건축물이 행여나 역사성을 가지게 된다면 더욱 자랑스러울거라 평상시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경우는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가...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안도다다오 건축가를 존경합니다. 많이 알려진 건축가인데 저는 책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어서 감동받은 부분이 있고 그의 작품들은 유명하기 때문에 답사를 다니며 생각하게 되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책의 내용으로 접한 그의 성격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불같다라는 인상이었으나 건축을 향한 열정 그리고 연전연패라는 책을 통해 고백하는 생각들은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몰입하는 시간속에 인생의 행복을 말하는 그의 고백에 동감되었다고 할까요... 또 다른 분은 오랫동안 근무했었던 삼진 건축사사무소의 이봉수 건축사님을 존경합니다. 무엇이든 척박한 땅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 일은 어렵고 힘든일인데 소명에 따라 활동하시는 제 은사님 이십니다.

그동안 작품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작품활동이랄 것도 없지만 주로 만나게 되는 분들이 약간은 일반건축사분들이 접하기 힘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사람들과 틀린 생활리듬에 새벽기도 후 공양하고 미팅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른시간에 미팅을 했는데 제 생활에 그렇게 일찍 미팅한 경우가 없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또하나는 대지계획 및 설계가 잘된 경우는 풍수에 대한 개념과 비슷해 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타 사회활동에 대해?

호구지책 이라고 사무소 운영을 하다보니 사회활동이 미약하나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있습니다.

선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이분야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찌보면 현재의 역사를 만드는 산증인이 아닌가 합니다. 인생은 유한하여 100년을 살아내지 못하나, 결과물은 어떤식으로든 남아서 역사의 한페이지가 되기도 하고 축조물로서 디자인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이 직업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같은 기준에서 서로의 소통과 발전을 통해 단합되어 사회적인 책임과 권리를 조화시키는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향후 계획 및 포부

제가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이전과 지금을 이어주는 이음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만족합니다.

취재 : 박종호 건축사 / 정리 : 광승국 전담기자



전남 나주 / (주)삼정 건축사사무소 이형호 건축사



지난 6월 29일 전남 나주시 중앙동 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



이형호 건축사는 직원들과 함께 해외 건축물 답사를 자주 다니며 유대감을 강화한다고 한다.(일본답사 중...)

구례 연곡사 종합정비계획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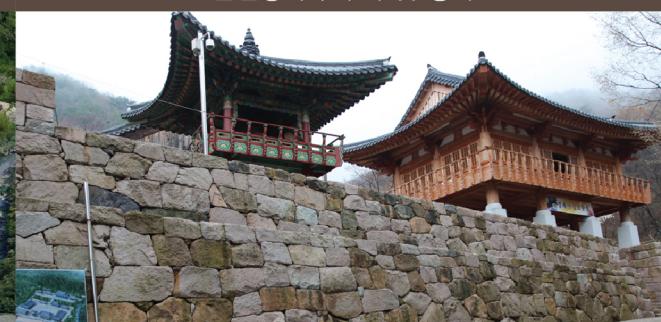
순천 정혜사 종합정비계획 조감도



구례 화엄사 금정암 조감도



순천정혜사 누각 및 종각



이형호 건축사 작품

구례 화엄사 탑전 조감도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수원판관공 제각 건립공사_조감도



지난 6월 27일부터 5일간 전남대에서... '지붕을 점령하라'라는 주제로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2016 건축디자인캠프' 개최해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회장 김홍식)는 지난 6월 27일부터 5일간 전남대학교에서 '2016 건축디자인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디자인캠프는 'Occupying the Roof! (지붕을 점령하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광주, 전남지역 대학교 건축 관련 학과 총 5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오픈식에는 광주, 전남지역 건축 관계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격려했는데 특히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 전남지회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은 디자인캠프가 실력 있는 건축인들을 양성하는 캠프로 자리잡았다"고 격려했으며, 전남건축사회 박용묵 회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나주지역 최세호 회장은 "제1기 디자인캠프 수료생으로서 축사를 하는 이 자리에 까지 서게되어 더 감격스럽다"고 밝히며 더욱더 훌륭한 후배들의 탄생을 기원했다.

한편 건축디자인캠프는 2년에 한번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지역 대학을 돌아가며 개최하는 건축행사로 지역 학생들과 교수, 건축사 등 건축인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도시와 건축,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2주간... 일본 가고시마대학 건축과 학생들 초청하여 교류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국제 설계 워크숍 진행해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일본의 가고시마대학 건축과 학생들과 교류를 실시해 왔다. 학기 중에 가고시마 대학의 교수를 전북대학교로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했고, 겨울방학 때는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학생들과 같이 건축답사를 실시하고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가고시마 대학교에서 5명의 학생이 전북대학교를 방문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국제 설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도교수인 남해경 교수와 튜터인 전라북도 건축사들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양국 학생들을 혼성하여 3인이 1조로 총 4팀이 합숙을 하며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워크숍 결과물을 세종시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마을 공모전에 제출하기로 하고 작업하고 있다. 이들은 워크숍과 더불어 틈틈이 전라북도와 우리나라의 건축답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전북대학교 강영찬 학생(3학년)은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아 더듬거리는 영어로 소통하고 있지만 마음을 열고 도면을 그려가면서 작업을 진행하니 소통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다른 나라 학생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 말하고 있고, 이번에 참여한 일본의 토다이 학생(4학년)은 "일본과 한국의 농촌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상황과 농민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다"면서 "열심히 해서 한국친구도 사귀고 설계실력을 기르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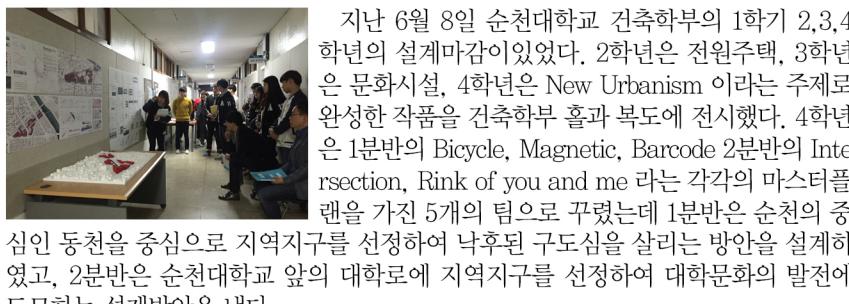
또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남해경 교수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짚은이들이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학생들이 같이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류 폭을 넓힐 것이며 올 겨울에는 국제학술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학교와 가고시마대학의 교류는 전라북도건축사회가 가고시마의 JIA회원들과 교류 일환으로 학생들도 교류하고자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전라북도건축사회와 가고시마 JIA, 가고시마대학, 전북대학교가 4자 교류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기로 하여 더욱 의의를 깊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는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한옥)의 일환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올 여름에는 프랑스에 1개월간 학생들을 파견할 계획이며 미국에서 '한옥진시회'를 초청받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정수진 학생기자

지난 6월 초 진행... 2~4학년 참여, 각각 주제에 따른 전시 및 발표 진행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1학기 설계 마감 작품 전시회 가져



지난 6월 8일 순천대학교 건축학부의 1학기 2,3,4 학년의 설계마감이 있었다. 2학년은 전원주택, 3학년은 문화시설, 4학년은 New Urbanism이라는 주제로 완성한 작품을 건축학부 홀과 복도에 전시했다. 4학년은 1분반의 Bicycle, Magnetic, Barcode 2분반의 Intersection, Rink of you and me라는 각각의 마스터플랜을 가진 5개의 팀으로 꾸렸는데 1분반은 순천의 중심인 동천을 중심으로 지역지구를 선정하여 낙후된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을 설계하였고, 2분반은 순천대학교 앞의 대학로에 지역지구를 선정하여 대학문화의 발전에 도모하는 설계방안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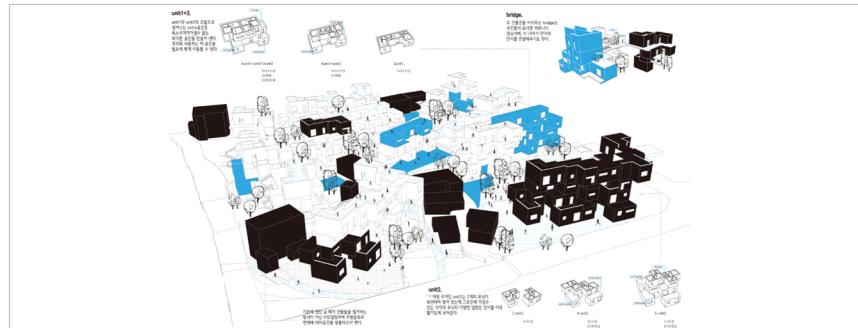
4주에 걸친 합반 수업을 통해 마스터플랜의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컨셉, 사이트 선정과 분석, 답사에 대한 공동 크리틱을 이뤘다. 5주차 부터는 분반별로 건물의 용도를 설정하고 개인별 리뷰가 이루어졌고 교수의 지도하에 설계를 이어 나갔다.

설계를 하면서 분반별로 크로스 체크를 하기도 하며 복도에 중간 전시를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각 팀들끼리의 마스터플랜을 공유하며 발전해 나갔다.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소현 학생기자

각각 총상금 1,000만원 걸린 공모전... 7월 말 공고 예정

광주건단연, '광주도시재생공모전'과 '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전' 개최한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안길전)는 2016년도 광주도시재생공모전과 도시재생 아이디어공모전을 오는 7월 말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두 공모전은 각각 총상금 1,000만원이 걸린 공모전으로 건축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2016년 광주도시재생공모전'의 경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를 대상으로 건축설계계획 공모로 진행되며, '도시재생 아이디어공모전'의 경우, 광주 서구 양동일대 취약지역을 광주형 재생사업으로 구상 및 제안하는 형식으로 공모될 예정이다. 두 공모전 모두 7월에 공고되어 9월초 참가접수를 진행하고, 10월 초 작품을 접수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062-714-2565)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사랑에서 _ 스무번째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누구를 만나는 나는 별개 문제다. 그냥 삶의 길이, 방향이 달라진다.

1980년대 가수 '해바라기'가 부른 오래된 노래지만 영화 파파로티의 OST로 사용되면서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음미하면서 들어보자.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나를 만나는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도 중요하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칭찬을 하면서 좋은 점을 닮아가기도 하고, 흉을 보면서도 그 흉을 닮아가기도 한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느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요즘에 와서 더 간절히 느낀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가장으로서, 건축사로서, 사회인으로서...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 땅에 오는 것도 혼자 오고, 가는 것도 혼자서 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한다.

관계는 상대적이다. 일방적일 수 없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해 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해 본다. 그럼 행복은 어떻게 찾아올까?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에서 온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선물이다. 감사하자. 행복이다.

그러나 삶은 현실이다. 순조롭기만 할 수 없다. 일과 생활에서 다양한 관계로 시련에 부딪힐 수도 있고, 수많은 좌절과 고통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먼저 행복해 하고, 상대도 행복해 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다시 새겨 본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박홍근 자문위원 aforyou@naver.com〉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作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호남권 포럼에 이어 10월 부산시(동남권)와 제주도(강원제주권), 11월 인천시(수도권)에서 국건위 '국민이 행복한 건축' 정책 구현을 위한 전국 순회 포럼 이어나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제해성, 이하 국건위)가 '국민이 행복한 건축이라는 제4기 국건위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올해 첫 번째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이하 "전국순회포럼")을 지난 6월 23일 광주광역시(호남권)에서 개최한 가운데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순회포럼은 국가 건축정책 방향의 실효성 정립과 건축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국건위가 주최하고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다.

전국순회포럼은 국가 건축정책 방향의 실효성 정립과 건축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국건위가 주최하고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해당 지역 건축정책 이슈와 국가 정책 등을 위주로 국건위 위원·대학교수·연구원·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및 학생 등이 대거 참여하여 각자가 생각하는 건축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다. 토론을 거쳐 나온 다양한 건축정책에 대한 의견은 국건위를 거쳐 각 중앙부처의 관련 부서로 전달되고 전달된 의견은 정부의 정책에 다양한 모습으로 반영된다. 지난 6월 23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 포럼에서는 '공유도시, 공유건축과 주거문화'라는 주제로 5.18 기념문화센터(대동홀)에서 개최했다.

도심 밀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공간의 독점화는 더욱 더 큰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라는 개념을 도시와 건축으로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공론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논의 주제로 정하였고 다양한 방안이 도출됐다. 한편 다음 전국순회포럼은 오는 10월에는 부산광역시(동남권)와 제주도(강원제주권)에서 11월에는 인천광역시(수도권)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북항 재개발사업지구 내 해양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살린 창의적인 랜드마크형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통한 도시·건축 공공성 확보'라는 주제로 개최 예정이며, 제주도는 지역 발전과 실정에 적합한 주제 선정을 위해 내부협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7월 중 확정될

지난 7월 1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협회 이사 등 50여명 참석

'건축사 사업모델개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전문가 토론회 열려



지난 7월 1일 대한건축사협회 3층 국제회의실에서는 '건축사 사업모델개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선임연구위원의 '건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건축사 사업모델 개발'과 '건축사 업무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업무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제시' 등의 연구 내용이 발표됐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윤혁경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대한건축사협회 김호준, 박준승 이사를 비롯하여 법제위원회 김영훈 위원장, 건축위원회 김상호 위원장, 백민석 법제전문위원, 녹색에너지위원회 이기완 위원장,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경남건축사회 김세환 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 모두 "현재 건축서비스업의 낙후된 산업구조 및 시장규모 감소로 인해 건축사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 용역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및 업무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제시' 등의 연구 내용이 발표됐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윤혁경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대한건축사협회 김호준, 박준승 이사를 비롯하여 법제위원회 김영훈 위원장, 건축위원회 김상호 위원장, 백민석 법제전문위원, 녹색에너지위원회 이기완 위원장,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경남건축사회 김세환 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 모두 "현재 건축서비스업의 낙후된 산업구조 및 시장규모 감소로 인해 건축사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 용역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법 /령 /정 /보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6년 8월 10일까지 제출)

1. 개정이유

미세먼지 대책 후속조치 및 건축편의 지원 등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속건축물의 건축입지 확대 (안 제2조제12호)

부속용도의 부속건축물을 같은 대지에 건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된 건축물과 다른 대지에도 부속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특례 적용 (안 제6조의2제2항제1호)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부분이 생긴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하고자하는 건축 등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나 면적 증가없이 건축물 안전 등 구조보강 등을 위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도록 함.

다. 건축면적 산정시 자동차 충전시설 제외 (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2) 신설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용주차구획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를 활성화하고자 함.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2016년 8월 10일까지 제출)

1. 개정이유

화물차량 크기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우천시 작업편의 등을 도모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창고 돌출 차양 건축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고시설 건축면적 기준 완화 (안 제43조제2항제2호)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돌출 차양 길이를 현행 3m에서 6m까지 확대함.

나. 아파트현황 통계의 체계적 관리 (안 별지 제17호서식)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세부현황은 관리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세부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주택 수급 현황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 자료 활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아파트 사용승인 신청시 세부현황을 기재하도록 함.

□ 내게 도움 되는 공간정보, 뭐가 있나?... “찾기 쉬워져” (16.6.30.)

- 지역개발·교통·환경보호 등 2만 8천여 건 분류해 공개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에 따라 표준화를 완료한 공간정보 목록을 지난 6월 30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www.nsdi.go.kr)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한 공간정보 목록은 139개 기관*의 도로, 건물, 행정구역, 항공사진, 도로명주소와 같은 기본공간정보와 식생도, 임상도, 생태자연도와 같은 주제정보, 주유소, 시장, 병원, 경로당, 관공서 등에 대한 위치정보 등 총 2만 8천여 건에 달한다.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정의된 공간정보 관리기관
올해 조사된 공간정보 목록은 전년도 23,214건 대비 23.6%(5,480건)가 증가된 28,694건으로, 이중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6,310건, 지자체 21,870건, 공공기관 514건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이 전체 공간정보의 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텍스트기반의 일반 속성정보 보다는 지형도, 항공사진 등과 같은 위치기반의 공간정보가 대다수를 차지(89.0%)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길찾기, 실시간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사용자 위치 중심의 공간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는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로등, 도로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보를 나타낸 것"이라면서, 이번에 공개한 목록을 통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의 공간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공공기관은 이미 구축된 자료의 공동 활용을 통해 기관별 중복구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민간기업은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국가공간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달에 따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며, "누구나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목록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축문화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명철, 박용숙, 전병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김상호,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윤문근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정명학
부편집인	강정영,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현
전담기자	곽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법, 박신남, 강필서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이광영, 윤미순, 백재봉, 박주현, 이종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월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주)디자인포유 T.062)385-9395 T.062)521-0025

표지설명

새로운 건축문화사랑 변화의 시작은... 한걸음, 한걸음 부터

광고 및 구독신청

- 후면 전면광고: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700,000원
- 하단광고: 350,000원
- 하단1/2광고: 200,000원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원부터
•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광주건축사회 실무교육
(주)마이다스아이티 350,000원
300,000원

건축문화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
전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임용, 인사
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월 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Tel: 062-521-0025)

E-mail: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나는 살면서 사실 나의 어렸을 때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했다.

조소영 회사원
광주 광산구



나는 살면서 사실 나의 어렸을 때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공부와 연관 된 일이지만, 나는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남들은 핵심만 공부할때 난 대중없이 다 공부했다.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답답하기도 했다. 점점 생각이 많이지게 되면서 나는 왜 그럴까? 자책하는 날도 오는 것 같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나 스스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바빴다. 내가 처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된 때는 처음 자격증을 땄을 때부터이다. 남들 다 하는 컴퓨터자격증 이였지만, 난 그 자격증 하나에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점점 더 어려운 시험에 도전해 보기도 하고, 실기시험을 2번을 떨어지고 이건 아닌가? 포기하려다가도 오기가 생겨서 남들 다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나 싶었다.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공부에도 나한테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다. 그래서 꼭 공부가 아닌 내가 잘 할수 있는 것, 내가 자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는 이제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사회에 나오니 조금씩 알 것 같다.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아픔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닌 나를 완성시켜주는 또 하나의 가르침인 것 같다.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가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패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언제 만나느냐의 차이지 내가 지금 실패한다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어렸을 때 나의 실패는 한없이 나약하게 느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다. 나와 같이 느꼈던 사람도 무언가 하나의 자신감을 가져서 실패도 달게 받아들여서 스스로 더 단단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마다 아침마다

태완섭 사무국장
전라북도건축사회

술을 마시면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싶고
아무데나 오줌도 싸고 싶고
기나가는 행인들과 시비도 불고 싶고
사방마다는 말도 하고 싶고
돌아가신 어머님도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을 데
머릿속이 어지러워 금세 잊어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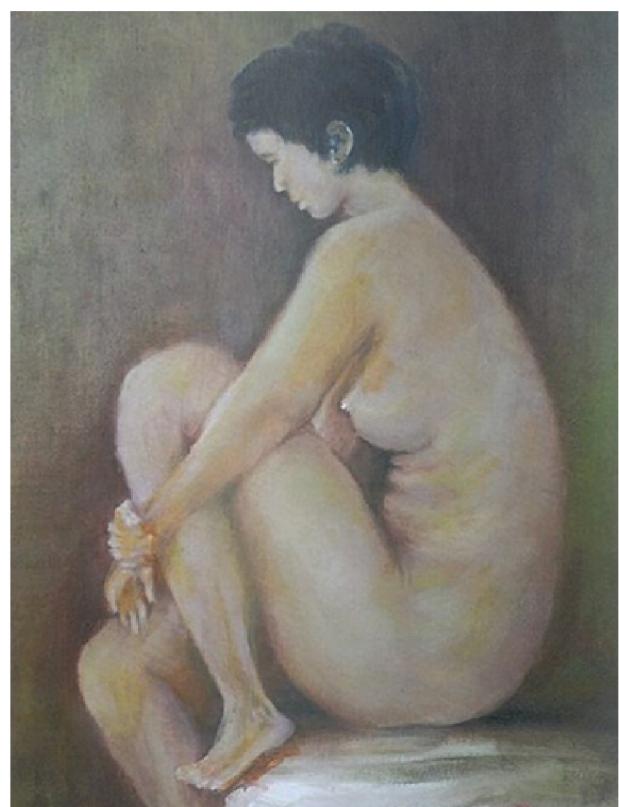
깨어나면 언제나
아무것도 난이들이 없어
계면씩은 아침이 시작 됩니다

건축사 미술작품 소개



양동현 건축사 作

광주/(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인물 Oil on Canvas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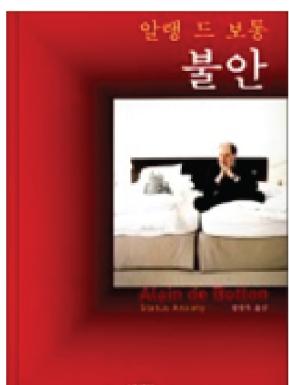
책 소개



불안 저자: 알랭 드 보통 정영복 역 은행나무 2011.12.28.

김유미 팀장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살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과거보단 요즘에 와서 더욱 불안과 가까이 지내는 듯하다.
하지만 정작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책은 불안이 생기는 원인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또한 이 불안의 해소방법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결국 인간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타인으로부터의 사랑, 관심 때문이 아닐까 싶다.
물론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이나를 꼭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시선으로 불안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원인과 해소법을 제시해준다. 어려울 것만 같은 철학이 우리의 불안을 납득시켜주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희망도 준다.

나 스스로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 타인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결국 그것이 나와 타인의 관계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이 책이 불안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다. 인류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시각도 제시한다.



보일러실이 필요없는 초절전 온수관 온돌 난방 시스템

온도센서

압력수용 밀폐장치

과송방지

EH현진 초절전 온수방열관

압력수용장치

- ✓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보일러가 나왔다!
- ✓ 기계장치 및 보일러실이 필요없다!
- ✓ 유가대비 60%이상 난방비 절감!
- ✓ 음이온과 원자외선 방사열이 나온다!
- ✓ 사용중인 보일러 난방을 초절전 전기난방으로 바꿔드립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난방용 전열관)등록

중앙통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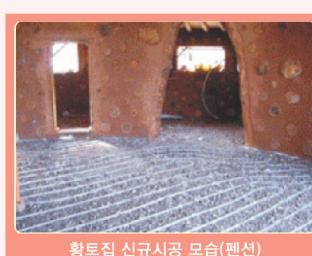


ROOM 1 ROOM 2 ROOM 3



ROOM 128

전열온수관 다회로 연결도



| T. 062)352-4521 | F. 062)352-4520 | Mobile. 010-3617-4499 | E-mail. yth7000@nate.com
| 본사·공장: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193 대주빌딩 2호 | T. 070)4247-4499



검색 현진ENC